

노인의 시간배분 유형에 따른 시간사용만족도의 차이*

Differences in Time Use Satisfaction by Time Allocation Types of the Elderly

한국방송통신대학교 가정학과
교 수 김 외 숙**

Dept. of Home Economics, Korea National Open Univ.

Professor Kim, Oi-Sook

〈목 차〉

I. 서론	IV. 연구 결과
II. 선행 연구 고찰	V. 결론 및 제언
III. 연구 방법	참고문헌

〈Abstract〉

The purpose of this study was to explore a typology of time allocation, investigate determinants of time allocation types, and analyze differences in time use satisfaction by the types of time use of the elderly.

The data source for this research was the 2009 Time Use Survey conducted by the Korea National Statistical office (KNSO). The 4,699 time diaries (3,552 for weekday, 1,147 for Sunday) completed by the elderly over the age of 60 were analyzed using mean, standard deviation, chi-square, cluster analysis, ANOVA analysis, Duncan test, and multinomial logistic regression analysis.

Time allocation of the elderly was classified into four types: personal care oriented, work oriented, leisure oriented, and balanced type. Gender, age, education, employment status, income, and the presence of spouse were identified as determinants for each type. According to the types of time allocation, time use satisfaction was different on week days.

Key Words : 노인(the elderly), 시간배분(time allocation), 시간배분 유형(time allocation typology), 시간사용만족도(time use satisfaction)

* 본 논문은 2013학년도 후기 한국방송통신대학교 학술연구비 지원을 받아 작성된 것임.

** 주저자, 교신저자 : 김외숙(kimos@knou.ac.kr)

I. 서론

시간은 모든 인간이 공통으로 하루 24시간의 한정된 양을 가진 자원으로 특정 활동에 시간을 배분하면 다른 활동에 배분할 수 있는 시간을 제한받게 되는 제로섬(zero-sum)의 특성이 있다. 따라서 시간을 어떻게 배분하는지에 대한 정보는 개인의 생활양식과 사회의 전반적인 생활문화를 이해하는 기초로서 중요한 의미를 갖게 된다. 이러한 이유에서 1960년대 이후 경제학, 사회학, 가정학 전공자들을 중심으로 시간배분에 대한 연구가 축적되어 왔고, 최근에는 국제생활시간학회(International Association for Time Use Research)를 중심으로 다양한 학문분야의 연구자들이 시간배분을 연구하고 있다.

인간의 하루생활은 개인의 생리적 에너지를 재생산하기 위해 사용되는 필수생활시간과 수입 노동 및 가사노동, 학습 등으로 이루어진 의무생활시간, 그리고 필수활동과 의무활동을 제외하고 남는 여가시간으로 구성되어 있다(김외숙·이기영, 2015). 각 활동영역별 시간배분은 성별, 취업 여부 등 다양한 요인에 따라 차이를 보이는데 생애발달주기에 따른 차이는 특히 큰 것으로 보고되고 있다.

100세 시대를 맞고 있는 오늘날의 노인은 연장된 수명으로 장기간 노년기를 보내게 되며 그 사이에 은퇴, 배우자와의 이별, 건강상태의 악화 등으로 사회적·경제적·환경적 변화를 많이 겪게 된다. 이러한 변화는 일상생활의 변화를 야기하고 이는 시간배분의 차이로 나타나게 된다. 즉 체력저하 및 질병 등 건강문제로 개인유지시간이 증가할 수 있고, 은퇴로 인한 사회적 역할 변화로 유급노동시간이 감소하는 대신 여가시간은 증가하게 된다. 따라서 노인의 시간배분을 파악하는 것은 이들의 전반적인 삶을 조망하고, 생활영역별 시간배분의 과소 문제, 여가활용문제 등 일상생활 문제를 파악하여 이들의 삶의 질을 높이

기 위한 방안뿐만 아니라 성공적인 노후생활을 위한 방안을 마련할 수 있다는 점에서 개인적, 국가적 차원에서 그 중요성이 크다.

지금까지 노인의 시간배분과 관련된 연구는 시간배분 실태를 파악하거나 시간배분에 영향을 미치는 변수를 분석한 연구(Gauthier & Smeeding, 2000a, 2000b; Krantz-Kent & Stewart, 2007; 정경희, 2001; 김은경·김응렬, 2002; 박민자·손문금, 2005; 박수미, 2007; 이윤희·배연정·이지민·이정재·서교, 2012; 박미희·변금선, 2013)가 주류를 이루어왔다. 최근에는 활동영역별 시간량을 기술통계로 분석하는 차원에서 한 걸음 나아가 활동영역별 시간량을 근거로 시간배분을 유형화함으로써(Burr, Mutchler & Caro, 2007; 김주현, 2007; 김진옥, 2006a, 2006b, 채화영·김주희·이기영, 2011) 시간배분을 통한 생활양식의 파악으로 연구가 심화되고 있다.

그런데 그동안 우리나라에서 이루어진 노인의 시간배분 유형화 연구에서는 노인의 하루 생활 중 생산적 활동(김주현, 2007), 일·가족·여가(김진옥, 2006a; 채화영·김주희·이기영, 2011), 일·가족(김진옥, 2006b) 등 특정 활동영역에 초점을 맞추어 시간배분을 유형화한 것으로 필수생활시간을 분석에 포함시키지 않은 공통점이 있다. 수면, 식사 및 간식, 개인관리, 의료적 건강관리, 기타 개인유지를 포함하는 개인유지시간은 인간의 생명유지를 위해 필수적으로 요구되는 시간이다. 최근 수면시간(김미은, 2014; 김선아, 2013; 박민정, 2014; 박익새, 2008; 이영주, 2012; 최문영, 2012; Okamura, Tsuda, Mar, Horiuchi, & Matsuishi, 2010; Speicher, 2008)이나 식사시간(김정석, 2011; 조희금·이승미·김외숙·이기영·이연숙·한영선, 2011; Khare & Inman, 2006; Hamermesh, 2007)에 대한 연구가 증가하고 있는데 이는 필수생활시간에 대한 사회적 관심을 반영하는 것이다. 건강상태의 차이가 심한 노인에게 있어서는 필수생활시간이 다른 어느 발달단계

에서보다 큰 의미를 가진다고 할 수 있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노인의 하루 24시간을 포괄하는 필수생활시간, 의무생활시간, 여가시간을 축으로 시간배분을 유형화하고, 유형의 결정요인을 분석하며, 유형별 시간사용만족도의 차이를 파악하고자 한다. 노인의 시간배분 유형에 대한 연구는 노인의 일상생활에 대한 이해를 심화하는 동시에 이들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기 위한 구체적인 방안을 마련할 수 있는 기초자료가 될 수 있다고 본다.

II. 선행연구 고찰

1. 노인의 시간배분 실태와 유형

노인을 대상으로 한 시간배분 연구는 주로 시간배분 실태를 분석하거나 시간배분에 영향을 미치는 변수를 파악하였고, 최근에는 시간배분 유형화에 대한 연구도 이루어지고 있다.

1999년 통계청에서 실시한 생활시간조사 원자료를 활용한 정경희(2001)는 노인의 경우 일이나 학습이 차지하는 비율이 비노인층에 비하여 현저히 낮으며 교제 및 여가활동이 높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어 하루 24시간의 29.3%에 해당하는 7시간 2분을 교제 및 여가활동을 위하여 소요하고 있다고 보고하였다. 그러나 대부분의 여가활동이 대중매체 이용에 편중되고 있을 뿐, 스포츠 및 집밖의 레저활동이나 취미활동을 하고 있는 노인들은 30% 내외이고, 관람 및 문화적 행사에 참여하는 노인은 1.1%에 불과하여 다양한 여가활동이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는 점을 밝혔다. 같은 원자료를 사용한 김은경과 김응렬(2002)은 연령 코호트에 의한 생활시간을 비교한 결과 65세이상 고령자의 경우 타 코호트에 비해 노동시간이 크게 단축된 반면 개인유지시간과 교제 및 여가활

동시간이 늘어난다고 보고하였다. 경제활동, 가정생활활동, 여가생활활동을 중심으로 노인의 생활세계를 살펴본 다수의 연구(김진옥, 2006b; 박수미, 2007; 박미희·변금선, 2013)에서도 노년기가 되면 일과 관련된 시간이 크게 감소하는 반면 여가시간은 크게 증가하였지만 여가의 질은 상대적으로 열악한 점을 공통적으로 보고하였다.

이러한 경향은 국제적 비교연구에서도 공통적으로 보고되고 있다. Gauthier와 Smeeding은 미국 및 유럽국가들의 노인을 대상으로 한 시간사용의 비교연구를 통해 노인이라도 전기노인과 후기노인의 시간사용이 다를 수 있고(2000a), 국가별로 시간사용양식에 큰 차이가 있지만 연령에 따른 변화에는 상당한 유사점이 있어서 노동시장에서의 은퇴로 자유로워진 시간이 대부분 소극적인 여가활동에 사용되는 점(2000b)을 밝혔다.

노인의 생산적 활동에 초점을 맞춘 연구에서는 생산적 활동의 구분방법에 차이를 볼 수 있다. 김진옥(2006a)은 생산적 활동을 경제적 생산활동과 사회적 생산활동으로 구분하고, 경제적 생산활동에 유급노동과 무급노동을, 사회적 생산활동에 가족보살피기와 참여 및 봉사활동을 포함하여 분석하였는데 한국의 노인들은 노년기에 접어들어 일과 관련된 시간의 소비는 크게 감소하지만, 여전히 적극적으로 생산적 활동에 참여한다고 보고하였다. 정경희와 윤지은(2010)은 생산활동을 협의의 생산활동과 광의의 생산활동으로 구분하고, 협의의 생산활동에 노동시장참여를, 광의의 생산활동에 가사노동과 자원봉사활동을 포함시켜 분석하였다.

이 외에 양영순(2007)은 노인의 시간배분이 역할과 관련이 있다는 관점에서 제도적 역할(노동시간, 가정관리시간, 가족보살피기 시간), 희박한 역할(개인유지시간, 교제 및 여가활동시간), 비공식적 역할(참여 및 봉사활동시간)로 구분하여 연구하였다.

1999년 통계청이 생활시간조사를 실시한 이후 대다수 시간배분 연구가 통계청의 자료를 이용한 경향을 보이는데 이신숙(2011a), 이주현, 박수현, 유은영, 정민예, 조덕연(2012)은 개별적으로 자료를 수집하여 노인의 생활시간을 연구하였다. 은퇴한 노인을 대상으로 한 이신숙(2011a)과 도시 지역에 거주하는 노인들의 시간배분을 분석한 이주현 등(2012)은 통계청의 활동분류방법을 토대로 연구목적에 따라 연구자가 활동을 분류하여 노인의 시간배분을 분석한 공통점이 있다.

시간배분의 실태를 활동별로 분석하는 수준에서 한 걸음 나아가 시간배분을 유형화한 연구(Burr et al., 2007; 김주현, 2007; 채화영 등, 2011)가 있다. Burr et al.(2007)은 미국 중·고령자의 생산적 활동시간에 초점을 맞추어 시간사용양식을 분석하였다. 이들은 생산적 활동을 유급노동, 무급노동, 공식적 자원봉사활동, 비공식적 지원활동, 돌봄활동을 기준으로 분석한 결과 헬퍼형(helpers), 가정유지형(home maintainers), 노동자/자원봉사자형(worker/volunteers), 슈퍼 헬퍼형(super helpers)의 네 유형으로 구분하였으며, 유형별 인구사회학적 특성의 차이를 분석하였다. 우리나라에서 노인을 대상으로 생활시간을 최초로 유형화한 김주현(2007)은 65세이상 노인의 생활세계가 동질적 세계가 아니라 다른 욕구 및 특성을 보이는 상이한 생활구성임을 검증하기 위해 생산적 활동(시간 사용량)에 중점을 두어 노인의 생활세계를 구분하고, 각 유형의 특성과 차이를 분석하였다. 그는 생산적 활동을 경제적 활동, 돌봄·지원활동, 자기개발활동의 세 차원으로 구분하였고, 경제적 활동에는 유급노동과 무급노동을 포함시켰으며, 돌봄·지원활동에는 가족보살피기와 사회참여/타인돕기, 자기개발활동에는 학습활동, 교제와 종교활동, 여가활동을 포함시켰다. 분석결과 노인의 생활세계 유형은 가정활동형(가족돌보기, 무급 가족노동, 가정일과 관련된 활동을 주로 함), 소극형(모든 활동에 덜 적극적임),

현역유지형(유급활동에 속해 있음), 자기향유형(학습, 종교, 여가 및 교제 활동에 참여하는 편임)의 네 유형으로 분류되었으며, 각 유형에 따라 성별, 연령, 학력, 경제적 상황, 혼인상태, 자녀동거 변수가 차이를 보이는 것으로 밝혀졌다.

채화영, 김주희와 이기영(2011)은 55세 이상 중·고령자를 대상으로 생활시간을 유형화하였다. 이들은 경제활동, 가정생활, 여가활동에 초점을 두어 유형화한 결과 남성은 여가형, 균형형, 가정적여가형, 생계형으로, 여성은 여가형, 살림형, 생계형과 소극형의 네 유형으로 분류하였고 유형별 특성을 파악하였다. 이 연구는 중·고령자의 일, 가족, 여가를 중심으로 남성과 여성을 구분하여 생활시간 유형을 파악한 점에 의의가 있으나 노인의 시간배분 중 높은 비중을 차지하는 개인유지시간을 제외하여 하루 24시간의 전반적인 실태를 파악하지 못한 제한점이 있다.

그동안 노인을 대상으로 시간배분을 연구한 이상의 선행연구를 정리하면, 노인의 시간배분 연구는 전반적인 일상생활시간을 분석하거나 일, 가족, 여가 또는 생산적 활동에 초점을 맞추어 살펴본 것으로 구분된다. 또한 시간배분을 유형화한 후 유형별 구체적인 특성을 파악한 Burr et al.(2007), 김주현(2007)과 채화영 등(2011)의 연구가 있으나 시간배분을 유형화함에 있어서 생산적 활동 또는 일, 가족, 여가의 특정 영역을 중심으로 유형화가 이루어져 노인의 하루 24시간의 시간배분에 대한 분석이 이루어지지 않은 제한점이 있다. 본 연구에서는 하루 24시간을 포괄하는 필수생활시간, 의무생활시간, 여가시간을 토대로 노인의 시간배분을 유형화하고자 한다.

2. 노인의 시간배분에 영향을 미치는 변수

노인의 시간배분에는 다양한 변수들이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밝혀져 있는데 특히 중요한 요인으로 성별, 연령, 교육수준, 취업여부, 소득, 배우

자 유무, 주거지가 보고되고 있다.

성별은 시간배분에 영향을 미치는 변수로 뚜렷이 나타나고 있다. 박민자와 손문금(2005)은 고령층집단이라고 해도 집단 내의 이질성 또한 분명히 존재하고 있고, 특히 우리나라의 경우 성역할 구분에 의해 삶의 중심점이 남성은 사회, 여성은 가족으로 나뉘어 구성되었던 경험은 고령층이 되어서도 성에 따른 생활양식의 차이로 나타난다는 점을 고려하여 고령 여성과 남성의 일상생활을 구분하여 분석하였다. 이들은 생활시간을 개인유지시간, 유급노동시간, 무급노동시간, 여가시간, 이동시간, 기타시간의 6개 대분류로 구분하고, 무급노동시간은 가사노동과 가족보살피기, 여가시간은 조직활동, 교제활동, 레저활동, 대중매체활동의 중분류로 구분하여 분석하였다. 그 결과 고령남성은 수면, 식사, 유급노동, TV시청 등의 활동들 이외에는 이동과 걷기·산책, 놀이활동을 주로 하는 반면 고령여성들은 이러한 활동들 이외에 음식준비 및 정리, 청소 및 정리에 시간을 보내고 있는 것으로 밝혀져 고령남성과 고령여성의 하루일과에서 차이를 보이는 것으로 나타났다. 박수미(2007)는 1999년과 2004년의 생활시간조사 자료를 활용하여 시간배분에서의 젠더 차이를 분석한 결과 일, 가족, 여가를 둘러싼 고령집단의 성별 생활세계 유형은 그대로 유지되면서 전체적으로 유급노동시간이 줄고, 가족생활시간이 증가하였다고 보고하였다. 또 남성고령자의 유급노동시간이 여성고령자보다 길게 나타난 반면 무급노동시간은 여성고령자가 남성고령자보다 월등히 높아서 고령층에서도 성별분업관행이 지속되고 있다고 확인하였다. 그는 평생 동안 유급노동과 무급노동을 병행하는 취업여성의 이중부담은 고령집단에서도 그대로 발견되며 이와 동시에 이들은 열악한 여가생활을 한다고 보고하였다. 김진옥(2006b)의 연구에서도 남성노인은 유급노동과 문화·스포츠·취미활동에 시간을 많이 소비하고, 여성노인은 무급노동과 전통적 가사노동

에 시간을 많이 소비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55세 이상 중·고령자의 생활시간을 행위자비율과 행위자평균시간을 중심으로 분석한 채화영 등(2011)의 연구에서도 노인의 남녀간 생활시간 사용은 차이를 보여 남성노인은 유급노동과 스포츠 및 레저활동 등의 적극적 여가활동을 많이 하는데 비해 여성노인은 무급노동과 가사노동, 교제 및 종교활동의 소극적 여가활동을 많이 하는 특징을 보였다. 3개국 노인의 시간사용을 장기적으로 비교한 Gauthier와 Smeeding(2001)도 연령 변화에 따른 시간사용양식이 성별에 따라 다른 점을 밝혔다.

아동, 청소년, 성인, 노인 등 인간발달의 단계에 따라 시간사용에 차이를 보일 뿐만 아니라 노인 중에서도 연령별 차이가 나타난다. 노인의 연령에 따른 일, 가족, 여가시간을 분석한 김진옥(2006b)은 남성노인의 경우 연령이 낮을수록 노동시간이 더 길고, 연령이 높아질수록 참여 및 여가활동시간, 대중매체, 문화·스포츠·취미활동시간이 긴 것을 밝혔다. 여성노인도 연령이 낮을수록 총노동시간이 길어지는 경향을 보였고, 연령이 높을수록 참여 및 여가활동시간이 더 많았으며 특히 연령이 높을수록 교제, 종교, 대중매체 등에 보내는 시간이 증가하는 특징을 보였다. 은퇴한 노인을 중심으로 연구한 이신숙(2011a)도 연령이 많을수록 평일과 주말의 참여 및 봉사활동, 평일의 여가활동시간이 더 많다고 밝혔다. 김은경과 김응렬(2002)은 노인의 연령을 65-69세, 70-74세, 75-79세, 80세 이상의 4개 집단으로 분류하여 생활시간을 분석한 결과 65-69세 집단보다 70세 이상으로 갈수록 일관되게 개인유지시간이 길어진 반면 노동시간은 유의하게 감소하였는데, 이는 후기 고령기(75세 이상) 노인은 신체적 쇠약으로 인해 개인유지를 위한 시간, 즉 수면, 식사, 세면, 건강관리 등에 소비하는 시간이 전기 고령자(65-74세)보다 많기 때문이라고 보고하였다. 중·고령자의 생활시간을 조사한 박미희와

변금선(2013)은 연령이 증가함에 따라 남성은 여가 및 개인유지시간을 급격히 증가시키지만, 여성은 일(유급노동)과 가사노동의 이중부담으로부터 자유롭지 못해 양과 질이 모두 취약한 여가생활을 보낸다고 보고하였다. 연령에 따른 생활시간의 차이는 국제비교 연구에서도 그대로 나타나고 있다. 9개 국가의 45세 이상 중·고령자를 중심으로 연령집단을 45-54세, 55-64세, 65-74세, 75세로 구분하여 살펴본 결과(Gauthier & Smeeding, 2000b) 연령이 높을수록 유급노동시간은 감소하고, 소극적 여가시간과 개인유지시간은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Krantz-Kent와 Stewart의 연구(2007)에서도 55세 이상 노인을 대상으로 연령집단을 55-59세, 60-64세, 65-69세, 70세 이상의 네 집단으로 구분한 후 생활시간을 비교한 결과 연령이 높을수록 유급노동시간은 감소하는데 비해 수면시간과 여가시간이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이러한 연령별 차이는 성별과 취업여부에 따라서도 차이를 보였다.

교육수준도 노인의 시간배분에 영향을 미치는 변수로 밝혀져 있다. 김은경과 김응렬(2002)은 학력 변수가 노인의 생활시간에 미치는 영향은 크지 않지만 학력이 낮을수록 노동시간이 길고, 교제 및 여가활동시간은 짧다고 밝혔다. 남성과 여성노인을 구분하여 분석한 김진옥(2006b)의 연구에서는 남성노인의 경우 중졸이하 저학력 노인들의 무급노동시간이 초대졸이상 노인들보다 더 길었고, 참여 및 여가시간은 초대졸이상 고학력 집단이 더 길었는데 특히 문화·스포츠·취미시간이 유의하게 길었다. 여성노인은 중졸이하 집단의 총노동시간(유급노동과 무급노동)이 다른 학력집단보다 상대적으로 길고 가사노동시간은 더 적은 것으로 나타나, 이 집단의 유급노동부담이 더 많은 것과 관련이 있다고 밝혀졌다. 중졸이하 저학력 여성노인들은 여가시간도 더 적은 것으로 나타났다. 박미석과 이유리(2003)는 학력을 무학, 초졸, 중·고졸, 초대졸이상의 네 집단으로 구분

하여 분석한 결과 중·고졸과 초대졸이상의 집단은 무학과 초졸 집단보다 여가시간이 더 길고, 무학집단의 경우 여가시간에 수면을 취하거나 아무 것도 하지 않고 무료하게 보내는 반면 초대졸 이상 집단은 자기개발과 스포츠 및 레저활동과 같은 적극적인 여가활동을 한다고 밝혔다. 이상의 연구결과들을 정리하면, 학력이 높을수록 유급노동시간이 적고, 여가시간이 많으며, 여가시간 중에서도 자기개발과 문화 및 스포츠 활동 등의 적극적 여가활동시간이 많은 공통점이 있다.

취업은 일정 시간을 노동에 배분하게 한다는 점에서 취업여부는 시간배분에 가장 큰 영향을 미치는 변수이다. 노인의 생활시간에 대한 다수의 연구(김은경·김응렬, 2002; 박미석·이유리, 2003)에서 경제활동을 하고 있는 노인은 비경제활동 노인보다 개인유지시간과 여가시간이 짧은 반면 노동시간은 긴 결과를 보이고 있다.

소득에 따른 노인의 시간사용의 차이를 분석한 양영순(2007)은 60세이상 노인들을 대상으로 노인의 시간배분을 Rosow(1976)의 역할유형에 대입시켜 분류한 후 시간배분에 영향을 미치는 변수를 파악하였다. 제도적 역할에 일, 가정관리, 가족보살피기, 희박한 역할에 개인유지, 교제 및 여가활동을 포함하여 분석한 결과 소득이 높을수록 제도적 역할에 대한 시간배분이 많은 반면 희박한 역할을 위한 시간배분은 적은 것으로 밝혀졌다. 이신숙(2011a)은 은퇴한 노인의 경우 월생활비가 많을수록, 경제상태가 좋을수록 여가생활에 소요하는 시간이 길다고 밝혔다. 그는 노인의 경우에도 여가생활과 경제적인 측면이 밀접한 관련성이 있어 은퇴 이후 수입이 충분하고 신체적인 기동성을 가지고 있다면 은퇴 이후 생활시간 활용도 더 용이하고 따라서 적응에 성공할 가능성도 크다고 보았다.

배우자 유무도 노인의 시간배분 구조에 영향을 미치는 변수이다. 김은경과 김응렬(2002)은 유배우 노인의 경우 무배우 노인보다 비중을 두는

활동이 일, 가족보살피기, 교제 및 여가활동 등인 반면 무배우 노인은 개인유지 및 가정관리 등으로 나타나 배우자 유무가 생활시간에 유의한 차이를 나타내는 중요한 변수라고 보았다. 노인의 일, 가족, 여가생활을 중심으로 생활시간을 살펴본 김진욱(2006b)은 남성노인의 경우 유배우자는 무배우자보다 총노동시간 및 유급노동시간, 참여·여가 전체시간, 종교활동시간이 많은 반면 가족관련 전체시간(전통적 가사노동, 가족보살피기) 및 전통적 가사노동시간, 대중매체, 문화·스포츠·취미활동시간이 적다고 보고하였다. 여성노인의 경우 사별·이혼 등의 사유로 홀로된 노인은 유배우 노인보다 유급노동시간, 참여·여가 전체시간 및 교제활동, 종교, 대중매체, 문화·스포츠·취미활동시간이 더 긴 반면 무급노동시간, 가족관련 전체시간은 더 짧다고 보고하였다. 은퇴한 노인을 중심으로 노인의 생활시간을 연구한 이신숙(2011a)은 배우자가 없는 경우가 있는 경우보다 평일과 주말에 참여나 봉사활동에 사용하는 시간이 많다고 밝혔다.

한편 이윤희, 배연정, 이지민, 이정재, 서교(2012)는 2009년 생활시간조사 원자료를 활용하여 도시와 농촌 지역 고령인의 일상생활 행위별 시간배분형태를 비교분석하였다. 분석결과 유급노동과 무급노동시간에서 지역별로 큰 차이를 보였는데, 유급노동시간의 경우 남성 고령 농가(235분)는 비농가(94분)보다 두 배 넘는 시간을 사용하고, 여성 고령 농가(108분)는 비농가(35분)보다 세 배 가량 더 많이 사용하며, 특히 농가 여성의 무급노동시간은 111분으로 비농가 여성의 16분에 비해 월등히 많다고 보고하였다. 고령농가의 여가시간은 비농가보다 적고, 대부분의 여가는 미디어이용과 같은 수동적인 여가행위로 이루어지고 있으며, 나머지 개인유지 및 가정유지, 사회적 참여와 친분은 농가와 비농가의 시간 투입정도가 유사한 것으로 나타나 결국 노동시간의 차이가 여가시간이 차이로 연결된다고 밝혔다.

이상과 같이 노인의 시간배분은 성별, 연령, 학력, 취업여부, 소득, 배우자 유무, 주거지에 따라 차이가 있는 점을 알 수 있다. 본 연구에서는 도시와 농촌 지역 노인들의 차이를 고려하여 비농가 노인만을 대상으로 관련 변수들이 다른 변수들을 통제했을 때 시간배분 유형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지 파악하고자 한다.

3. 시간사용만족도

시간사용만족도란 자신이 사용한 시간에 대한 만족 정도(김외숙 등, 2010)로 전반적인 시간배분에 대한 만족도를 살펴보거나 활동별 시간사용으로 구분하여 시간사용만족도를 파악한 연구가 있다.

초등학생을 중심으로 생활시간에 대한 전체 시간사용만족도와 영역별 만족도를 분석한 강인자와 김혜연(2005)은 초등학생의 전반적인 시간사용만족도는 보통수준이고, 활동별로 보면 교제활동에 대한 만족도가 가장 높는데 비해 문화활동에 대한 만족도는 낮다고 보고하였다.

성인을 중심으로 가족이 함께 하는 시간을 유형화한 후 유형별 시간사용만족도를 분석한 연구(김외숙 등, 2010)에서는 비가족공유형, 가족여가우위형, 가사노동우위형, 가족공유형 중 가족여가우위형의 생활시간만족도가 가장 높아 가족의 여가활동 공유가 시간사용만족도에 긍정적 영향을 미치는 점이 밝혀졌다.

맞벌이 부부를 중심으로 한 연구(김주희, 2012)에서는 맞벌이 부인의 경우 취업노동시간이 가장 적은 취업과소형의 시간사용만족도가 가장 높고, 맞벌이 남편의 경우에는 취업과 여가를 병행하는 취업·여가병행형이 시간사용에 가장 만족하는 반면 취업집중형과 취업과소형은 시간사용만족도가 낮은 것으로 나타나 남편의 경우 취업노동시간이 과도하게 많은 경우뿐만 아니라 과도하게 적은 경우에도 시간사용만족도가 낮은 점에서 적정수준의 노동시간이 중요한 점을 밝혔다.

채화영 등(2011)은 중·고령자를 대상으로 일, 가족, 여가를 중심으로 남성과 여성의 시간배분을 유형화한 연구에서 유형별 특성의 하나로 시간사용만족도 변수를 사용하였다. 이들은 시간사용만족도를 만족, 보통, 불만족의 세 집단으로 구분하여 시간배분 유형별로 차이를 분석한 결과 남성의 경우 균형형의 시간사용만족 비율이 가장 높고, 여성의 경우 생계형의 시간사용 불만족 비율이 가장 높은 점을 밝혔다.

기혼자의 여가공유대상 유형별 시간사용만족도를 분석한 김외숙(2012)은 타인중심형의 시간사용만족도가 가족중심형, 개인중심형, 취약형보다 높다고 밝혔다. 연구자는 다른 어느 활동 영역에서보다 여가생활에서 함께하는 사람이 미치는 영향은 더 큰데 가족중심형의 경우 우리나라 부부가 적극적 여가활동보다 가정 안에서 소극적 여가활동에 많은 시간을 함께한다는 점을 고려할 때 가족중심형의 시간사용만족도가 타인중심형보다 낮은 요인으로 작용할 가능성이 있다고 추론하였다.

이 외에 시간사용만족도보다 포괄적인 생활만족도를 사용하여 시간배분과의 관계를 살펴본 연구가 있다(한지수, 2004; 이신숙, 2011b). 한지수(2004)는 취업집단과 비취업집단 부인과 남편의 시간사용을 유형화하여 유형별 생활만족도를 분석한 결과 취업집단은 유형에 따라 차이를 보였지만 비취업집단은 차이를 나타내지 않았다고 보고하였다. 취업부인의 경우 평일 시간사용유형 중 수입노동중시형과 가사노동중시형이 개인유지중시형보다 생활만족도가 높았고, 취업남편의 경우 휴일 시간사용유형 중 가사노동중시형의 생활만족도가 가장 높았다. 이신숙(2011b)은 은퇴노인을 대상으로 시간사용과 생활만족도에 대하여 연구를 한 결과 수면과 가사노동, 참여·봉사활동 및 TV시청, 라디오청취시간이 줄어들수록 생활만족도가 높은 반면 취미나 흥미 있는 일에 시간을 많이 활용할수록, 의료 활동에 드는 시간이

늘어날수록 생활만족도가 높은 것으로 나타나 노인의 활동별 시간사용과 생활만족도는 관련성이 있음을 밝혔다.

이상의 선행연구 고찰을 통하여 초등학생, 맞벌이부부, 성인, 중·고령자, 노인 등 다양한 인구집단의 시간사용만족도 또는 생활만족도가 활동영역별 시간배분이나 시간배분 유형에 따라 상이한 점을 알 수 있다. 노인을 대상으로 시간배분 유형별 시간사용만족도를 분석한 연구(채화영 등, 2011)도 있으나 시간배분 유형의 분류기준에 필수생활시간을 포함하지 않았고, 시간사용만족도를 세 집단으로 나누어 유형별 특성변수로 처리한 제한점이 있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필수생활시간을 포함한 하루 24시간을 기초로 시간배분을 유형화한 후 유형별 시간사용만족도의 차이를 분석하고자 한다.

III. 연구방법

1. 연구문제

본 연구의 연구문제는 다음과 같다.

- [연구문제 1] 노인의 시간배분은 어떻게 유형화되는가?
- [연구문제 2] 노인의 시간배분 유형의 결정요인은 무엇인가?
- [연구문제 3] 노인의 시간배분 유형에 따라 시간사용만족도는 어떠한 차이가 있는가?

2. 분석자료

본 연구의 분석자료는 통계청의 2009년 생활시간조사 원자료 중 60세이상 비농가 노인의 질문지 및 시간일지이다. 생활시간조사의 요일별 차이를 고려하여 평일과 일요일의 시간일지 4,699

부(평일 3,552부, 일요일 1,147부)를 분석하였으며, 분석대상행동은 ‘주행동’으로 한정하였다.

3. 분석방법

분석대상자의 일반적 특성을 살펴보기 위하여 빈도, 백분율을 구하였고, 시간배분 유형화를 위해 생활시간의 대분류인 필수생활시간, 의무생활시간, 여가시간의 세 차원을 기준으로 군집분석(K-means Cluster Analysis)을 실시하였다. 군집간의 차이검증 및 유형별 인구사회학적 특성을 밝히기 위해 교차분석, 일원분산분석 및 Duncan의 사후검증을 실시하였고, 시간배분 유형별 결정요인을 파악하기 위해 다항로지스틱 회귀분석을 실시하였다. 마지막으로 시간배분 유형에 따른 시

간사용만족도의 차이를 파악하기 위하여 일원분산분석 및 Duncan의 사후검증을 이용하였다.

4. 분석대상자의 일반적 특성

분석대상자의 일반적 특성은 <표 1>과 같다. 여성이 남성보다 13.4%p 더 많으며 이는 노인의 일반적인 성비를 반영한 것으로 볼 수 있다. 연령을 60대, 70대, 80대이상으로 구분할 때 60대가 53%로서 반 이상을 차지하고, 학력은 57%가 초등학교 졸업 이하에 속한다. 취업한 노인은 29%이고, 개인 월평균소득이 없는 노인이 30%이다. 배우자가 있는 노인이 65%로 약 2/3가 유배우상태이다.

<표 1> 분석대상자의 일반적 특성

단위: 빈도(%)

변수	구분	전체 (N=4,699)	평일 (N=3,552)	일요일 (N=1,147)
성별	남성	2,035(43.3)	1,549(43.6)	486(42.4)
	여성	2,664(56.7)	2,003(56.4)	661(57.6)
연령	60대	2,490(53.0)	1,865(52.5)	625(54.5)
	70대	1,636(34.8)	1,258(35.4)	378(33.0)
	80대 이상	573(12.2)	429(12.1)	144(12.6)
학력	초졸	2,685(57.1)	2,029(57.1)	656(57.2)
	중졸	840(17.9)	637(17.9)	203(17.7)
	고졸이상	1,174(25.0)	886(24.9)	288(25.1)
취업 여부	취업	1,351(28.8)	1,027(28.9)	324(28.2)
	비취업	3,348(71.2)	2,525(71.1)	823(71.8)
소득	없음	1,411(30.0)	1,066(30.0)	345(30.1)
	50만원 미만	1,476(31.4)	1,109(31.2)	367(32.0)
	100만원 미만	946(20.1)	728(20.5)	218(19.0)
	100만원 이상	866(18.4)	649(18.3)	217(18.9)
배우자 유무	유	3,055(65.0)	2,320(65.3)	735(64.1)
	무	1,644(35.0)	1,641(46.2)	412(35.9)

IV. 연구결과

1. 노인의 시간배분 유형

노인의 필수생활시간, 의무생활시간, 여가시간의 점수분포를 요일별로 분석한 결과는 <표 2>와 같다. 평일의 경우 필수생활시간은 평균 11시간 39분이며 중앙값은 11시간 30분으로 나타났다. 표준편차는 2시간 6분으로 의무생활시간(3시간 37분)이나 여가시간(3시간 18분)보다 1시간 이상 적은 값을 보여 다른 영역보다 개인별 차이가 적은 점을 알 수 있다. 의무생활시간은 평균 4시간 45분, 여가시간은 평균 7시간 37분으로 나타났다.

일요일의 필수생활시간은 평균 11시간 46분, 중앙값은 11시간 40분으로 평일과 10분 이하의

유사한 분포를 보이고, 의무생활시간은 3시간 40분으로 평일에 비해 1시간 5분 적은 반면 여가시간은 평균 8시간 34분으로 평일보다 57분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기초정보를 바탕으로 노인의 시간배분을 유형화하였다. 필수생활시간, 의무생활시간, 여가시간의 세 차원을 기준으로 군집분석(K-Means Cluster Analysis)을 실시한 결과 <표 3>과 같이 평일 및 일요일 모두 각각 4개의 집단으로 유형화할 수 있었다.

먼저 평일에서 유형 1을 보면 각 영역별 평균 점수를 <표 3>에서 제시된 평균값과 비교할 때 필수생활시간은 평균값보다 많은 반면 의무생활시간은 평균보다 많이 적고 여가시간이 약간 적은 값을 나타내었다. 필수생활시간은 14시간 50분으로 네 유형 중 가장 많은 특징이 있다. 따라

<표 2> 필수생활시간, 의무생활시간, 여가시간의 기초통계량

요일	활동영역	평균	표준편차	중앙값
평일 (N=3,552)	필수생활시간	698.67	125.95	690.00
	의무생활시간	284.58	217.10	250.00
	여가시간	456.75	198.13	470.00
일요일 (N=1,147)	필수생활시간	705.84	117.29	700.00
	의무생활시간	220.44	187.55	190.00
	여가시간	513.72	182.91	530.00

<표 3> 노인의 시간배분 유형별 빈도 및 표준편차 점수

요일	유형	N(%)	필수생활시간	의무생활시간	여가시간	code
평일	1	609(17.1)	890.15	111.87	437.98	+ - -
	2	855(24.1)	639.45	596.34	204.21	- + -
	3	1,071(30.2)	662.11	95.13	682.76	- - +
	4	1,017(28.6)	672.31	325.41	442.28	- + -
일요일	1	238(20.7)	856.43	97.27	486.30	+ - -
	2	155(13.5)	651.55	580.84	207.61	- + -
	3	416(36.3)	654.95	89.57	695.48	- - +
	4	338(29.5)	687.34	302.96	449.70	- + -

서 유형 1을 “개인유지중심형”으로 명명하였다. 전체 분석대상자 중 17.1%가 이 유형에 속하여 네 유형 중 가장 적은 분포를 보인다.

유형 2와 유형 4는 의무생활시간은 평균보다 많은데 비해 필수생활시간과 여가시간은 적은 공통점이 있다. 따라서 점수부호로 보면 “- + -”로 동일하게 표시할 수 있으나 그 내용에서 차이를 보인다. 유형 2는 의무생활시간이 다른 유형들보다 특히 많은 특징이 있으므로 “일중심형”이라 명명하였고, 유형 4는 필수생활시간, 여가시간이 평균보다 적지만 그 차이가 20분 내외에 불과하여 “균형형”으로 명명하였다.

유형 3은 필수생활시간, 의무생활시간은 평균

보다 적고, 여가시간은 11시간 23분으로 평균보다 1.5배 많으며 네 유형 중 가장 많다. 점수부호로 표시하면 “- - +”로 표시할 수 있어 “여가중심형”으로 명명하였다. 전체 3,552명의 분석대상자 중 30.2%가 이 유형에 속한다.

일요일의 경우 유형 1을 평균점수와 비교해 보면, 필수생활시간은 평균보다 많은데 비해 의무생활시간 및 여가시간은 평균보다 적은 특징이 있다. 이를 부호로 나타내면 “+ - -”이므로 “개인유지중심형”으로 명명하였다. 이 유형에 속하는 응답자는 20.7%이고, 이 유형의 필수생활시간은 평균 14시간 16분이다.

유형 2와 유형 4는 필수생활시간과 여가시간

〈표 4〉 노인의 시간배분 유형별 세 차원점수의 분산분석 및 사후분석 결과

요일	활동영역	유형	평균	F
평일 (N=3,552)	필수생활시간	개인유지중심형	890.15a	1125.398***
		일중심형	639.45d	
		여가중심형	662.11c	
		균형형	672.31b	
	의무생활시간	개인유지중심형	111.87c	6438.903***
		일중심형	596.34a	
		여가중심형	95.13d	
		균형형	325.41b	
	여가시간	개인유지중심형	437.98b	4361.423***
		일중심형	204.21c	
		여가중심형	682.76a	
		균형형	442.28b	
일요일 (N=1,147)	필수생활시간	개인유지중심형	856.43a	307.947***
		일중심형	651.55c	
		여가중심형	654.95c	
		균형형	687.34b	
	의무생활시간	개인유지중심형	97.27c	1770.169***
		일중심형	580.84a	
		여가중심형	89.57c	
		균형형	302.96b	
	여가시간	개인유지중심형	486.30b	1335.812***
		일중심형	207.61d	
		여가중심형	695.48a	
		균형형	449.70c	

***p<.001

은 평균보다 적은 반면 의무생활시간은 평균보다 많은 공통점이 있으나 그 내용에서 차이를 나타낸다. 유형 2의 의무생활시간은 평균보다 2.6배 많으며 네 유형 중 가장 많은 특징을 보여 “일중심형”으로 명명하였다. 유형 4는 필수생활시간, 의무생활, 여가시간 모두 전반적으로 고르게 사용하는 특징을 보이므로 “균형형”으로 부를 수 있다.

마지막으로 유형 3을 보면 네 유형 중 여가시간이 특히 많고 필수생활시간과 의무생활시간이 평균보다 적은 시간을 보인다. 이를 부호로 나타내면 “- - +”이므로 “여가중심형”이라고 명명하였다. 이 유형의 여가시간은 평균 11시간 35분이며, 전체 분석대상자 중 36.3%가 이 유형에 속한다.

이상과 같이 노인의 시간배분을 평일과 일요일로 구분하여 네 집단씩 유형화한 결과 요일에 관계없이 여가중심형(평일 30.2%, 일요일 36.3%)이 가장 많은 분포를 보이고, 다음으로 많은 유형은 균형형(평일 28.6%, 일요일 29.5%)이었다. 일중심형은 평일의 경우 24.1%의 분포를 차지하는 반면 일요일에는 13.5%로 평일의 분포가 10.6%p 더 높다. 또한 개인유지중심형은 평일의 경우 17.1%의 분포를 차지하는데 비해 일요일에는 20.7%의 분포를 보여 일요일의 분포가 3.6%p 더 높은 것을 알 수 있다.

<표 4>는 4개의 시간배분 유형이 활동영역별로 차이가 있는지 파악하기 위해 ANOVA분석 및 Duncan의 사후검증을 실시한 결과이다. 평일과 일요일로 나누어 각 변수에 대해 유형간의 차이를 검증한 결과 모두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를 보였다. 평일의 경우 필수생활시간과 의무생활시간은 네 유형 모두에서 차이를 보였고, 여가시간은 개인유지중심형과 균형형은 서로 차이를 보이지 않았으나 이들 두 유형과 일중심형, 여가중심형은 서로 차이를 보였다. 일요일의 경우에는 필수생활시간은 일중심형과 여가중심형 사이

에는 집단간 차이를 보이지 않았으나 이들 두 유형과 개인유지중심형, 균형형은 서로 차이를 보였다. 의무생활시간의 경우 개인유지중심형과 여가중심형 사이에는 집단 간 차이를 보이지 않았고, 이들 두 유형과 일중심형, 균형형은 서로 차이를 보였다. 여가시간은 네 유형 모두가 서로 차이를 나타내었다.

2. 노인의 시간배분 유형 결정요인

노인의 시간배분 유형의 결정요인을 살펴보기 위해 균형형을 기준집단으로 인구사회학적 특성을 독립변수로 하는 다항로지스틱 회귀분석을 실시하였다. 독립변수에는 성별, 연령, 학력, 취업여부, 소득, 배우자 유무의 인구사회학적 특성을 포함하였다.

먼저 평일을 보면 균형형에 비해 개인유지중심형이 될 확률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은 성별, 연령, 학력, 취업여부, 소득, 배우자 유무로 본 연구에서 분석된 모든 변수가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남성이 여성에 비해 개인유지중심형일 가능성이 유의미하게 높았고, 60대보다는 70대가, 70대보다는 80대가 개인유지중심형일 확률이 높았다. 학력은 중졸집단보다 초졸과 고졸 이상 집단이, 취업자보다 비취업자가, 소득이 없는 노인이 월평균 100만원이상의 소득을 갖는 노인보다, 배우자가 있는 노인보다 없는 노인이 개인유지중심형에 속할 가능성이 유의미하게 높았다.

균형형에 비해 일중심형일 가능성에 영향을 미치는 변수는 연령, 취업여부, 소득으로 나타났다. 70대 집단보다 60대 집단이 일중심형에 속할 가능성이 높았고, 취업자가 비취업자보다, 소득이 없는 노인보다 100만원이상인 노인이 일중심형일 가능성이 유의미하게 높았다.

준거집단인 균형형과 여가중심형을 구분하는 주요변수는 성별, 연령, 취업여부, 배우자 유무로

나타났다. 여성에 비해 남성이, 60대 집단보다 70대 집단이, 취업자보다 비취업자가, 배우자가 있는 노인보다 없는 노인이 여가중심형에 속할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밝혀졌다.

다음으로 일요일을 보면 균형형에 비해 개인유지중심형이 될 가능성에 영향을 미치는 변수는 성별, 연령, 취업여부, 배우자 유무로 밝혀졌다. 여성보다 남성이 개인유지형일 가능성이 높았으며, 70대 노인보다 80대이상 노인, 취업자보다 비취업자, 배우자가 있는 노인보다 없는 노인이 개인유지중심형일 가능성이 유의미하게 높았다.

균형형에 비해 일중심형이 될 가능성에 영향을 미치는 변수는 학력, 취업여부, 소득이고 성별, 연령, 배우자 유무는 영향을 나타내지 않았다. 학력의 경우 고졸이상 집단보다 중졸집단이 일중심형일 가능성이 높았고, 취업자가 비취업자보다, 소득이 50만원 미만인 경우보다 소득이 없

는 집단이 일중심형에 속할 가능성이 유의미하게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일요일에 소득이 없는 경우가 일중심형에 속할 가능성이 더 높은 이유는 일 시간에 가사노동시간이 포함되었기 때문으로 보인다.

균형형과 여가중심형을 구분하는 주요변수는 성별, 취업여부, 배우자 유무로 나타났다. 여성보다 남성이 여가중심형일 가능성이 유의미하게 높았으며, 취업자보다 비취업자가, 배우자가 있는 노인보다 없는 노인이 그 가능성이 높았다.

노인의 시간배분 유형 결정요인을 평일과 일요일로 구분하여 분석한 결과 평일의 경우 연령과 취업여부가 균형형과 비교할 때 세 유형 모두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이고, 일요일에는 취업여부만 세 유형 모두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으로 밝혀졌다. 따라서 취업여부는 요일에 관계없이 시간배분 유형에 영향을 미치는 중요한 요인임을

〈표 5〉 시간배분 유형 결정요인 (평일)

구분	개인유지중심형		일중심형		여가중심형	
	B	S.E.	B	S.E.	B	S.E.
상수	-.627 **	.197	-1.661 ***	.210	-.184	.171
성별(기준: 여성)						
남자	1.565 ***	.150	-.225	.155	2.163 ***	.135
연령(기준: 70대)						
60대	-.281 *	.123	.387 **	.128	-.221 *	.109
80대이상	.445 **	.161	-.304	.272	.245	.156
학력(기준: 중졸)						
초졸	.410 *	.166	-.001	.150	.092	.139
고졸이상	.397 *	.190	-.222	.162	.299	.154
취업여부(기준: 비취업)						
취업	-1.546 ***	.192	2.110 ***	.137	-2.015 ***	.159
소득(기준: 없음)						
50만원미만	-.036	.129	-.174	.165	-.088	.121
100만원미만	-.323 *	.177	.343 **	.182	.005	.153
100만원이상	-.576	.232	.545	.209	.021	.186
배우자 유무(기준: 없음)						
있음	-.571 ***	.131	.247	.140	-.590 ***	.120
N	3,553					
-2 log likelihood	1577.003					
Chi-Square	1932.003***					
Degree of freedom	30					

주. 종속변수의 준거집단은 “균형형”임.

*p<.05, **p<.01, ***p<.001

〈표 6〉 시간배분 유형 결정요인 (일요일)

구분	개인유지중심형		일중심형		여가중심형	
	B	S.E.	B	S.E.	B	S.E.
상수	-.111	.324	-1.143 **	.394	.228	.290
성별(기준: 여성)						
남자	1.537 ***	.253	-.157	.306	2.031 ***	.225
연령(기준: 70대)						
60대	-.244 *	.209	-.380	.251	-.362	.185
80대이상	.775	.304	.265	.457	.534	.286
학력(기준: 중졸)						
초졸	-.097	.267	-.043 **	.289	-.238	.233
고졸이상	.098	.292	-.890	.337	-.073	.256
취업여부(기준: 비취업)						
취업	-.528 *	.254	1.936 ***	.296	-.947 ***	.233
소득(기준: 없음)						
50만원미만	-.210	.235	-.728	.324	.008	.209
100만원미만	.099	.298	-.420 *	.373	.020	.272
100만원이상	.325	.356	.422	.426	.227	.322
배우자 유무(기준: 없음)						
있음	-.943 ***	.224	.221	.267	-.558 **	.201
N	1,147					
-2 log likelihood	887.989					
Chi-Square	354.532***					
Degree of freedom	30					

주. 종속변수의 준거집단은 “균형형”임.

*p<.05, **p<.01, ***p<.001

알 수 있다. 취업은 일정 시간을 노동에 배분하게 한다는 점에서 취업여부는 시간배분에 가장 큰 영향을 미치는 변수로서 노동시간의 증가는 개인유지시간 및 여가시간을 감소시키는 결과를 초래할 수 있다. 이는 성인 및 노인을 대상으로 한 연구에서 경제활동을 하고 있는 집단은 비경제활동 집단보다 가족과의 식사시간, 가족공유시간, 여가시간이 모두 적은 것으로 나타난 결과(조희금 등, 2011; 김외숙, 2012, 김외숙 등, 2012)나 노동시간이 생활시간 유형을 구분하는 중요 요인으로 밝혀진 결과(차승은, 2008; 채화영 등, 2011)와 일치한다.

3. 노인의 시간배분 유형별 시간사용만족도

노인의 시간배분 유형별 시간사용만족도의 차

이를 분석한 결과는 <표 7>과 같다.

먼저 평일을 보면 노인의 시간사용만족도는 시간배분 유형에 따라 유의한 수준의 차이를 나타내었다. 균형형(3.26)의 만족도 점수가 가장 높았고, 여가중심형(3.21)과 일중심형(3.17), 개인유지중심형(3.06) 순으로 낮아졌다. Duncan의 사후검정 결과 균형형과 여가중심형 사이에는 차이가 없었고, 여가중심형과 일중심형 사이에도 차이가

〈표 7〉 노인의 시간배분 유형별 시간사용만족도

	개인 유지 중심형	일 중심형	여가 중심형	균형형	F
平日	3.06c	3.17b	3.21ab	3.26a	9.294***
일요일	3.11	3.18	3.27	3.20	2.605

**p<.01

없었으나 균형형, 일중심형, 개인유지중심형은 서로 유의한 차이를 보였다.

일요일에는 시간배분 유형별 시간사용만족도가 통계적으로 유의한 수준의 차이를 나타내지 않았다.

V. 결론 및 제언

본 연구에서는 노인의 시간배분을 유형화한 후 유형의 결정요인을 살펴보았으며, 유형별 시간사용만족도의 차이를 분석하였다. 연구결과를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노인의 시간배분을 필수생활시간, 의무생활시간, 여가시간을 토대로 유형화하면 평일과 일요일 모두 개인유지중심형, 일중심형, 여가중심형, 균형형의 네 가지로 분류된다. 요일에 관계없이 노인의 시간배분 유형에서 여가중심형이 가장 높은 비율을 보이고 다음으로 균형형이 많다. 평일과 일요일을 비교할 때 일중심형은 일요일보다 평일에 더 많은 분포를 보이는 반면 여가중심형은 평일보다 일요일에 더 많은 분포를 보인다.

둘째, 균형형을 기준으로 다른 유형에 속할 가능성에 영향을 미치는 변수를 보면 평일의 경우 개인유지중심형에 속할 가능성에는 성별, 연령, 학력, 취업여부, 소득, 배우자 유무가 영향을 미친다. 여성보다 남성이, 60대보다 70대가, 70대보다 80대가, 중졸보다 초졸과 고졸이상이, 취업자보다 비취업자가, 월평균 100만원이상의 소득이 갖는 노인보다 소득이 없는 노인이, 배우자가 있는 노인보다 없는 노인이 개인유지중심형이 될 가능성이 높다. 균형형과 비교하여 일중심형에 속할 가능성은 연령, 취업여부, 소득의 영향을 받는다. 70대보다 60대가, 비취업자보다 취업자가, 소득이 없는 노인보다 월평균 100만원 이상인 노인이 그 가능성이 높다. 여가중심형에 속할 가능

성에는 성별, 연령, 취업여부, 배우자 유무가 영향을 미치는데 여성보다 남성, 60대보다 70대, 취업자보다 비취업자, 배우자가 있는 노인보다 없는 노인이 여가중심형에 속할 가능성이 높다.

일요일의 경우에는 균형형에 비해 개인유지중심형에 속할 가능성에 영향을 미치는 변수는 성별, 연령, 취업여부, 배우자 유무이다. 여성보다 남성, 70대보다 80대이상, 취업자보다 비취업자, 배우자가 있는 노인보다 없는 노인이 개인유지중심형이 될 가능성이 높아진다. 일중심형이 될 가능성에는 학력, 취업여부, 소득이 영향을 미치며 고졸이상보다 중졸, 비취업자보다 취업자, 소득이 월평균 50만원미만인 노인보다 없는 노인이 일중심형이 될 가능성이 높아진다. 여가중심형의 경우 성별, 취업여부, 배우자 유무가 영향을 나타내어 여성보다 남성, 취업자보다 비취업자, 배우자가 있는 경우보다 없을 때 여가중심형에 속할 가능성이 높아진다.

요일과 관계없이 취업여부는 균형형과 다른 유형들에 속할 가능성을 구분하는 주요 변수이다. 취업자는 일중심형, 비취업자는 개인유지중심형과 여가중심형이 될 가능성이 상대적으로 더 높다.

셋째, 시간배분 유형별 시간사용만족도는 평일에만 차이를 나타낸다. 균형형의 시간사용만족도가 가장 높으며 여가중심형, 일중심형 순으로 낮아지고, 개인유지중심형의 시간사용만족도가 가장 낮다.

이상의 연구결과를 바탕으로 논의 및 제언을 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시간배분 유형 중 일평균 여가시간이 11시간이 넘는 여가중심형이 약 절반(평일 47.4%, 일요일 48.3%)을 차지할 정도로 다수의 노인이 여가중심의 생활을 하고 있다. 노인의 여가생활은 사회적으로 소외되기 쉬운 이들에게 사회적 소속감을 제공하고, 신체적, 정신적 건강유지에 도움을 주며 자기계발의 기회로서 작용할

뿐만 아니라 즐거운 일상생활을 유지시켜 주는 기능을 한다는 점에서 다른 어느 생활주기에 있어서 보다 특히 그 의미와 중요성이 크다. 그런데 우리나라 노인의 여가생활이 대중매체 이용에 편중되어 있고 전반적으로 소극적인 문제점이 있다(정경희, 2001; 박미석·이유리, 2003; 이윤정·정순희, 2004). 따라서 많은 여가시간을 가진 노인들이 적극적으로 여가생활을 즐길 수 있는 다양한 방안이 모색되어야 할 것이다. 노인이 이용하기 적합한 여가시설 및 프로그램의 확대와 함께 노인에게 대한 여가교육과 여가전문가의 지원이 필요하다고 할 수 있다.

둘째, 요일과 관계없이 남성은 여성에 비해 여가중심형의 비율이 높고 여성은 남성보다 균형형의 비율이 높은 경향은 성역할 구분의 결과라고 볼 수 있다. 성역할 구분에 의해 삶의 중심점이 남성은 사회, 여성은 가족으로 나뉘어 구성되었던 경험이 노인이 되어서도 유지되면서 일에서 은퇴한 고령남성은 주로 여가활동으로 시간을 보내는 반면 여성의 경우 가사노동을 계속하는 점을 알 수 있다. 노후부부의 가사노동분담이 부부관계 및 생활만족도에 영향을 미친다는 점에서 남성의 가사노동참여가 필요하다고 본다. 중·고령 남성의 가사노동참여를 연구(김외숙, 2014)한 결과에 따르면 중·고령남성의 일평균 가사노동 시간은 여성의 22% 수준이고 가사노동의 종류에 따라 남성의 가사노동참여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이 다르다. 따라서 남성노인의 특성에 맞춘 가사노동 참여 증대 프로그램을 개발할 필요가 있다. 특히 다른 종류의 활동보다 미취학아이보살피기에 참여하는 중·고령 남성의 비율이 높은 점을 고려할 때 손자녀를 돌보는 할아버지에 대한 교육 및 지원도 필요한 시점이라고 할 수 있다. 사회전반에 걸쳐 가족친화정책을 강화하는 한편 건강가정지원센터에서 남성의 가사노동참여를 증진시킬 수 있는 프로그램을 확대실시할 것을 제안한다.

셋째, 시간사용만족도가 가장 높은 유형이 균형형이지만 균형형의 시간사용만족도가 여가중심형의 만족도와 통계적으로 유의한 수준의 차이가 없고 여가중심형과 일중심형의 시간사용만족도도 차이가 없는 점에서 일과 여가가 균형을 이루는 시간배분을 하거나 여가중심 또는 일중심으로 시간을 사용하는 것이 시간사용만족도에 큰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고 볼 때 개별 노인의 상황에 따라 다양한 양식의 시간배분이 각각 의미를 갖는다고 할 수 있다. 그러나 시간사용만족도가 가장 낮은 유형이 개인유지중심형이라는 점을 고려할 때 건강의 중요성을 확인할 수 있다. 즉 개인유지시간이 특별히 많은 이유는 주로 낮은 건강상태와 관련된다고 볼 때 노인의 삶의 질에 기본적인 영향을 미치는 건강의 중요성을 다시 강조할 수밖에 없다.

본 연구는 노인의 시간배분을 유형화하고, 유형의 결정요인을 파악하였으며, 유형별 시간사용만족도의 차이를 살펴보았다. 그러나 분석대상자를 비농가노인에 한정하였으므로 농가노인의 시간배분 유형, 농가와 비농가노인의 시간배분 유형의 차이 등을 파악하지 못한 제한점이 있다. 앞으로 농가노인을 포함한 연구와 함께 노인의 시간사용만족도에 영향을 미치는 다양한 변수들에 대한 심층적 연구가 이루어지기를 기대한다.

【참 고 문 헌】

- 1) 강인자·김혜연(2005). 제주도 초등학교 학생의 생활시간 사용 및 만족도. 한국가족자원경영학회지, 9(4), 1-19.
- 2) 김미은(2014). 우리나라 성인의 수면시간과 자살생각 및 자살시도와의 관련성 연구 : 제 5기 국민건강영양조사 자료(2010-2012)를 이용하여. 연세대학교 석사학위논문.

- 3) 김선아(2013). 성인의 수면시간과 고혈압 및 당뇨병과의 관련성. 전남대학교 석사학위논문.
- 4) 김외숙(2012). 기혼자의 여가시간 공유대상 유형 : 유형별 특성과 유형 결정요인. 한국가족자원경영학회지, 16(3), 133-152.
- 5) 김외숙(2014). 중·고령 남성의 가사노동참여 결정요인. 2014년 대한가정학회 제67차 추계 학술대회자료집, 145.
- 6) 김외숙·이기영(2015). 가사노동과 시간관리(2 개정판). 서울 : 한국방송통신대학교출판문화원.
- 7) 김외숙·이기영·이연숙·조희금·한영선·김하늬·김주희·윤용옥(2010). 식사, 가사노동, 여가를 중심으로 한 가족공유시간 분석. 2010년도 통계청 연구용역 최종보고서.
- 8) 김외숙·한영선·이기영·이연숙·조희금·이승미·윤용옥(2012). 성인의 가족공유시간 유형과 유형별 특성, 한국가족자원경영학회지, 16(2), 165-186.
- 9) 김은경·김응렬(2002). 노인의 생활시간 구조 분석. 한국학연구, 17, 145-175.
- 10) 김정석(2011). 준고령층 부부의 식사관련행위. 한국인구학회, 33(3), 123-142.
- 11) 김주현(2007). 생활시간사용으로 본 노년기 생산적 활동. 한국노년학, 27(4), 739-754.
- 12) 김진옥(2006a). 한국 노인의 생산적 활동에 관한 실증연구 : 1999년과 2004년 생활시간 조사자료 분석을 중심으로. 사회복지정책, 25, 133-158.
- 13) 김진옥(2006b). 한국 노인의 생활시간에 관한 연구 : 2004년 생활시간조사 자료에 나타난 노인의 일, 가족, 여가생활 분석을 중심으로. 노인복지연구, 32, 149-177.
- 14) 김주희(2012). 맞벌이 부부의 시간배분을 통해 본 일-생활 유형 연구. 서울대학교 박사학위논문.
- 15) 박미석·이유리(2003). 한국 노인의 여가활동 시간에 관한 연구. 한국가정관리학회지, 21(1), 37-48.
- 16) 박미희·변금선(2013). 생애과정 전환기의 생활시간 배분에 관한 연구 : 중·고령자의 생활시간 비교를 중심으로. 한국사회복지학, 65(3), 29-52.
- 17) 박민자·손문금(2005). 고령 여성과 남성의 일상생활 : “생활시간조사”자료를 중심으로. 사회과학연구, 11, 121-145.
- 18) 박민정(2014). 대학생의 스마트폰 중독이 수면시간과 수면부족에 미치는 영향. 조선대학교 석사학위논문.
- 19) 박수미(2007). 한국고령자의 생활시간 사용에 있어서의 젠더 차이 : 일, 무급가족노동, 여가를 중심으로. 여성연구, 72(1), 5-30.
- 20) 박일새(2008). 한국 성인의 수면시간과 전신비만, 복부비만의 관련성 연구. 연세대학교 석사학위논문.
- 21) 이신숙(2011a). 은퇴한 노인의 생활시간 사용에 관한 연구. 한국생활과학회지, 20(2), 311-325.
- 22) 이신숙(2011b). 은퇴한 노인의 생활시간 사용이 생활만족도에 미치는 영향. 한국가족관계학회지, 16(2), 35-58.
- 23) 이영주(2012). 청소년 수면시간과 수면시간 만족이 우울에 미치는 영향. 백석대학교 석사학위논문.
- 24) 이윤정·정순희(2004). 노인의 여가생활시간 소비패턴분석. 한국가족자원경영학회지, 8(1), 101-116.
- 25) 이윤희·배연정·이지민·이정재·서교(2012). 생활시간 분석을 통한 고령 농가의 정주활동구조 연구. 농촌계획, 18(4), 91-101.
- 26) 이주현·박수현·유은영·정민예·조덕연(2012). 도시 거주 일반노인들의 시간사용 실태조사. 대한작업치료학회지, 20(2), 85-98.
- 27) 양영순(2007). 여성노인의 시간사용과 가정에

- 서의 역할에 관한 연구. 한국사회복지학회, 439-445.
- 28) 정경희(2001). 노인의 생활시간 배분실태. 보건복지포럼. 56-70.
- 29) 정경희·윤지은(2010). 한국노인의 생산활동 참여실태 및 경제적 가치. 보건복지포럼, 48-57.
- 30) 조희금·이승미·김외숙·이기영·이연숙·한영선(2011). 가족이 함께하는 식사시간과 영향요인에 대한 연구. 한국가족자원경영학회, 15(1), 1-28.
- 31) 차승은(2008). 중년의 일, 가족, 여가시간 배분유형과 유형결정요인 : 취업한 기혼 남녀를 중심으로. 대한가정학회지, 46(1), 103- 116.
- 32) 채화영·김주희·이기영(2011). 중·고령자의 생활시간 유형화 연구. 한국가족자원경영학회, 15(2), 129-146.
- 33) 최문영(2012). 한국 청소년의 수면시간과 비만과의 연관성 연구. 연세대학교 석사학위논문.
- 34) 한지수(2004). 부부의 시간사용유형 분석. 고려대학교 박사학위논문.
- 35) Burr, J. A., Mutchler, J. E., & Caro, F. G.(2007). Productive activity clusters among middle-aged and older adults : intersecting forms and time commitments. *Journal of Gerontology*, 62(4), 267-275.
- 36) Gauthier, A. H., & Smeeding, T. M.(2000a). Patterns of time use of people age 55 to 64 years old : some cross-national comparisons. Syracuse : Center for Policy Research, Syracuse University.
- 37) Gauthier, A. H., & Smeeding, T. M.(2000b). Time use at older ages : cross-national differences. *Research on Aging*, 25(3), 247-274.
- 38) Gauthier, A. H. & Smeeding, T. M.(2001). Historical trends in the patters of time use of older adults. Paper commissioned by the OECD. On-line : <http://www.oecd.org/els/public-pensions/2430978.pdf>.
- 39) Hamermesh, D. S.(2007). Time to eat : Household production under increasing income inequality, *Journal American Journal of Agricultural Economics*, 89(4), 852-863.
- 40) International Association for Time Use Research(IATUR). <http://www.iatur.org/>
- 41) Khare, A. & Inman, J. J.(2006). Habitual behavior in american eating patterns : The role of meal occasions. *Journal of Consumer Research*, 32(4), 567-575.
- 42) Krantz-Kent, R. & Stewart, J.(2007). How do older americans spend their time? *Monthly Labour Review*, 2007(May), 8-26.
- 43) Okamura, H., Tsuda, Y., Mar, K. H., Horiuchi, T. & Matsuishi, K.(2010). Short sleeping time and psychobiological responses to acute stress. *International Journal of Psychophysiology*, 78(3), 209-214.
- 44) Speicher, B.(2008). Sleeping time and the twenty-four-hour day time budget constraint : Tools in forensic economic analysis. *Journal of Legal Economics*, 15(1), 87-91.

- 투 고 일 : 2014년 12월 31일
- 심 사 일 : 2015년 2월 11일
- 심사완료일 : 2015년 2월 12일